

폭염특보 年 130회 발령... 온열질환 주의

특히 여름으로 접어들면서 산행·외출시 주의

수분 보충·음식물 위생관리도 각별히 주의해야

행정안전부(행안부)는 7일 최근 한낮의 기온이 크게 오르며 폭염특보가 잇따르고 있어 신행 등 이외활동시 건강관리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기상청에 따르면 최근 5년(2013~2017년)간 발표된 폭염특보는 총 652회다. 연간 130회 정도의 폭염특보가 발령된 셈이다. 올해는 지난 2월 대구·광주 등 일부지역을 중심으로 첫 폭염주의보가 발령된 후 더운 날씨가 지속되고 있다.

폭염주의보는 일 최고기온 33도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내려진다.

35도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내려진다.

특히 계절이 여름으로 접어들면서 한낮 기온이 크게 오르고 등산로에 수풀이 우거져 산행 시 온열질환 발생과 조난 등의 사고 위험이 높다.

온열질환은 무더운 날씨에 무리한 외부 활동으로 발생한다. 일사·열사병, 열실신, 열경련, 열탈진 등의 증상으로 나타난다.

등산사고도 빈발하고 있다. 행안부 재난연감 통계를 살펴보면 2012년부터 2016년까지 발생한 등산사고는 연평균 1455건으로 나타났다. 6월에는

608건 정도가 발생했다.

등산사고는 실족과 추락이 33%(2413건)로 가장 많았지만 길을 잃고 혼매는 조난이 17%(1211건), 개인질환에 의한 사고도 11%(836건)나 발생하고 있다.

더운 여름 안전하게 산행을 즐기기 위해서는 일정을 평소보다 여유롭게 잡고 한낮 더위에는 쉬어가는 것이 좋다.

다른 계절보다 땀을 많이 흘리게 되는 여름 산행은 평소 보다 빨리 지치고 몸에 무리를 줘 탈진 등의 사고로 이어지기 쉽다.

이때 강한 햇볕 아래서 땀을 많이 흘리고 근육을 심하게 움직이면 현기증(열피로)과 열경련이 발생하기 쉽다. 이 같은 증상들이 지속되면 일사병과 열사병 등으로 이어질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독이 마르지 않아도 규칙적으로 수분을 보충하고 갈증을 느끼면 이미 탈수가 시작된 것으로 바로 수분을 보충해야 한다. 폭염에 무리한 이외활동으로 두통이나 어지러움, 구역질, 경련 등의 증상을 보이면 즉시 서늘한 곳으로 옮긴 후 몸을 조이는 옷 등은 느슨하게 풀어주고 병원에 간다.

여름철은 습한 날씨와 높은 온도로

음식이 쉽게 변질되기 쉬우니 도시락 등 음식물 위생관리에도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한성원 행안부 안전관리정책관은 “최근 폭염특보가 잇따르고 있어 산행 등 이외활동을 할 때 한낮의 땅볕은 피하고 충분한 수분섭취로 온열질환 발생에 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뉴스

군산대 김아영씨

지역인재 7급 합격



군산대학교 총장 우수인재양성반 고급공무원준비반(담당교수 행정경제학부 황성원 교수) 소속 김아영 학생이 2018년 인사혁신처 주관 지역인재 7급 수습직원 선발에 최종 합격했다.

지역인재 7급 수습직원 선발시험은 공직 내 지역대표성을 강화하고 지방대학 활성화 및 공직 종원경로의 다양화를 도모하기 위해 2005년부터 도입해 시행되고 있다.

올해에는 111개 대학에서 추천한 498명 가운데 51개 대학 130명이 최종합격했다.

4년제 대학교에서 추천받은 학과성적 상위 10% 이내의 졸업(예정)자를 대상으로 공직적격성검사 등 필기시험, 서류진정, 면접을 거쳐 선발됐다. 선발된 7급 수습직원은 내년 상반기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에서 4주간 교육을 이수한 뒤, 1년간 중앙행정기관에서 근무한 후 업무에 대한 근무성적 및 추진 능력 등에 대한 임용심사위원회의 평가 심사를 거쳐 7급 국가공무원으로 임용된다.

군산대학교에서는 2010년부터 황성원 교수의 지도하에 고급공무원준비반을 운영해 왔다.

PSAT(공직적성평가) 특강 및 자체스터디 모임 운영, 전문가 면접 특강 등의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다.

/군산=김정훈 기자



농촌진흥청 직원들이 7일 원주군 회현면의 양파 주산단지를 찾아 일손 부족으로 수확이 힘들었던 농가를 돋고자 구슬땀을 흘리며 양파를 수확하고 있다.

“삼권분립 참담, 사법적폐 청산”... 시국선언·성명 잇따라

전국 교사 2만2015명 ‘전교조 법외노조화 철회’ 등도 요구

양승태 대법원장 사찰 재판 거래의혹 등 이른바 ‘사법 행정권 남용 사태’를 규탄하고 진상 규명과 후속조치를 촉구하는 시국선언과 성명 발표 등이 잇따르고 있다.

7일 전국 초·중·고교 및 유치원 교사 2만2015명은 ‘사법적폐 청산과 사법농단 피해 회복을 촉구하는 교사 선언’을 통해 사법 행정권 남용으로 인한 피해자 구제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의 법외노조화 철회 등을 요구했다.

이들은 오전 11시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사법부 독립과 삼권분립에 대해 가르쳐온 우리 교사들은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 대한민국 사법

권력은 법전 대신 수첩을 저울 대신 주판을 들고 있었던 것”이라며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사법농단 부역 세력을 구속수사하고, 사법 적폐 청산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라고 밝혔다.

또 “양승태 대법원은 법외노조 관련 재판을 정치적 흥정의 대상으로 삼았다. 고등법원의 법외노조 통보 효력 정지 결정을 뒤엎은 재항고 인용이 정의비와 대법원 모두의 이의야기는 계획을 세우고 판결 시점까지 설정했다”라며 “불법적인 국정농단의 결과라고 이미 수차례 드러난 전교조 법외노조화를 즉각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사법농단에 따른 피해자들의 명예를 회복하고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특별법이 제정돼야 한다. 심각한 피해에 대해서는 법 제정 이전에 긴급한 조치를 시행해야 한다”라면서 “거짓을 가로칠 수 있는 우리 교사들은 민주주의의 완성을 위해 학생들과 함께 당당한 민주시민으로 나설 것”이라고 전했다.

이날 전교조와 쌍용자동차 노동조합, 전국철도노조 등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단위 노조는 경기 성남 수정구 양천 대법관 자택 인근에서 오후 1시부터 규탄 기자회견을 예정하고 있다.

/뉴스

‘우리말, 배우면 배울수록 재미있어요’

도교육청, 다문화 가정 학생 ‘찾아가는 한국어교실’ 운영

전라북도교육청은 도내 다문화 가정 학생의 한국어 능력을 키워 주기 위해 도내 초·중·고 34개교 63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한국어교실’을 운영하고 있다.

찾아가는 한국어교실은 각 지역별 교육지원청에서 추천한 초·중등 퇴직교원 17명과 전라북도 내 10개 시·군(전주시 외 9곳)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추천한 한국어 강사 17명으로 교육봉사단을 구성해 지난 4월부터 운영 중이다.

현재 김제초등학교에서 찾아가는 한국어교실 교육봉사단 중인 퇴직교원 송명 선생님은 학생들의 문화적 배경을 살피고 그 삶의 방식을 존중하면서도 동시에 한국문화(특히 높임말, 인사와 절 등)에 대해서도 친절한 가르쳐 줌으로써 학생들의 마음을 활짝 열어줬다. 또한 ‘google 번역기’와 메모리 게임, 자석 철판, 자석 자모음자, 플래시 카드 등의 다양한 소프트웨어와 교구, 교재를 활용해 학생 중심 수업을 전개하고 있다.

송 선생님과 ‘찾아가는 한국어교실’에 참여하고 있는 김제초등학교 교육장은 “가장 많이 좋아진 것은 예전에 비해 경어 사용 빈도가 높아졌고 친구 관계도 더 좋아졌으며, 한국 문화에 대해 호기심을 갖고 물어보고 찾아보려는 시도를 많이 하게 됐다”고 전했다. 이러한 좋은 결과를 위해 김제초등학교 교직원은 학생들의 한국어 교실 운영을 전폭적으로 지원할 뿐 아니라 교육봉사자와 학교 간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바탕으로 최선의 교육 조건을 조성하고 있다.

‘찾아가는 한국어교실’은 올해 12월 말까지 진행될 예정이며 다음 교육지원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가능하다.

/김재훈기자

원광대 연구센터, 바이오의료기술 개발사업 박차

원광대학교(총장 김도중) 인수공통 김영병연구센터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재단에서 공모한 ‘국제 협력 기반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 변이 분석 연구’ 사업에 선정, 6년간에 걸쳐 연구비 60억을 지원받아 바이오의료기술개발사업에 박차를 가하게 됐다.

또한, 부센터장 여선주 교수를 주축으로 ‘고령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감별 원천기술 개발’에도 응모해 연구비 12억으로 바이오의료기술 개발사업을 동시에 수행한다.

특히 여선주 교수는 2018년 교육부에서 지원하는 기초연구과제 ‘SG ER(Small Grant for Exploratory Research-새로운 아이디어나 실패 위험이 높은 고위험 연구 지원)’ 사업으로 3년에 걸쳐 김영병 바이러스 전 단용 웹사이트 신소재 개발 연구를 수행한다.

조류인플루엔자는 신·변종이 많고 철새의 이동으로 중국·몽골 등 주변국에서 유입되는 경우가 대부분인 만

/액산=우병희 기자

